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설 연휴기간 지역을 방문해 민심을 챙겼다. 사진은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전남도당 위원장과 민주평화당 장병완(동남강)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광산강) 의원의 지역구 현장 방문 모습.

# “경제살리기 한 목소리...민생법안 통과 힘 모아야”

## 지역 국회의원들이 접한 설 민심

### 광주형일자리 기대감 커...정계개편 움직임 관심 평화·바른미래에 존재감 높여달라 주문 잇따라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설 연휴기간동안 지역민들로부터 들은 민심은 단연 ‘경제 걱정’에 대한 하소연이었다. 최근 현대자동차와의 투자 협약이 체결된 ‘광주형일자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서민 경제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이에 대한

민중당과 정부 정책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경제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주문도 쇄도했다. 총선을 1년 앞두고 정치권에서 진행 중인 정계 개편 움직임도 주요 관심사였으며, 여야를 떠나 ‘호남정치 복원’을 위해 존재감을

높여달라는 목소리도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6일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등을 너무 빠르게 진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아 자영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걱정이 많았다”고 전했다. 송 의원은 “시민들은 광주형일자리 타겟으로 우리 지역도 이제 양질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 기대감이 높았다”며 “여당인 민주당이 민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도 많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정치권이 싸움만 하지 말고 경제를 살리는 데 주력해야 주문이

많았다”며 “쌀값은 어느정도 안정세가 유지됐지만 양파, 대파, 소금값이 바닥을 치고 있어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민심을 전했다. 서 의원은 “여야가 정쟁만 하지 말고 민생법안을 빨리 통과시켜 경제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인 장병완 의원(광주 동남강)은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는 한숨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부익부 빈익빈’ 현상까지 심화돼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목청이 더 커졌다”고 지역민들의 하소연을 전했다. 장 의원은 “지역민들은 여야 구분 없이 민

생을 외면하고 정쟁만 계속하는 꼴꼴견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며 “단순히 지지율에 치우친 ‘이미지 정치’ 보다는 서민들의 한숨소리가 더 깊어지는지에 대한 고민과 해결책 제기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평화당 전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은 “민주당이 개혁을 잘할 줄 알았는데 개혁마저도 제대로 한 것이 없다는 여론이 많았다”며 “평화당이 이럴 때 자기 역할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손혜원 의원에 대한 투기 의혹이나 김경수 경남지사의 재판 불복, 사법부를 비난하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바른미래당이 국회에서 존재감을 높여야

직설적인 요구와 함께 경제난과 수구보수단 핵세력 부활에 대한 우려와 견제의 목소리도 절박했다”고 밝혔다. 주승용 국회의장(바른미래당·여수울)은 “올해 설은 지난 10년새 경제가 가장 안 좋은 것 같았다”며 “재래시장을 가보니 깜짝 놀랐다. 지난해 추석때만해도 북적북적했는데 올해는 절반도 안되다보니 인사나 다가가 미안할 정도였다”고 지역 분위기를 전했다. 주 부의장은 “여수 화태·백야간 연도교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해서는 지역민의 기대감이 컸다”면서도 “바른미래당이 존재감이 없다면 앞으로 당이나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걱정도 많았다”고 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 광주 조합장선거 혼탁·과열로 이어지나

### 선관위, 조합원에 금품제공 입후보예정자 4명 검찰 고발

오는 3월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혼탁 과열 양상이 심화하고 있다. 최근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입후보 예정자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울초부터 현재까지 광주지역 조합장선거 관련 검찰 고발 건수는 모두 4건에 달한다. 6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조합원의 자택 등을 방문해 본인 을 지지해 줄 것을 부탁하며 조합원과 그 가족 등 4명에게 현금 2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광주구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광주선관위는 A씨가 5만원권을 10장씩 말아 고무줄로 묶은 후 약속하며 건네는 방법으로 현금을 제공했다며, 조합원에게 제공한 현금 명치 200만 원과 A씨가 조합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장면이 포착된

CCTV 영상물을 증거로 확보했다. 또 광주선관위는 지난해 추석 연휴기간동안 조합원 3명에게 총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로 남구 모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도 지난달 30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앞서 광주선관위는 지난달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2명을 고발한 바 있다. 광주선관위는 최근 조합장선거를 공명선거로 치루고자 하는 조합원들의 의견 개선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선관위는 지난달 29일부터 광주지역 6개 조합을 금품선거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예방·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신고 포상금을 최고 3억 원(기준 1억 원)으로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선거법위반 행위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김현수기자 5151kh@srb.co.kr

이 있다”면서 “이번 고발건과 관련해 입후보예정자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조합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할 방침이라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장 선거일을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금품·향응제공 등 기부행위가 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금품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중 조치하는 등 선 선거 근절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선관위는 지난달 29일부터 광주지역 6개 조합을 금품선거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예방·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신고 포상금을 최고 3억 원(기준 1억 원)으로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선거법위반 행위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김현수기자 5151kh@srb.co.kr

## 광주 대표음식 공모합니다

### 시, 전 국민대상 15일까지 접수

광주시가 광주만의 특색을 담은 광주음식을 상품화 및 브랜드화하기 위해 15일까지 광주음식 공모전을 진행한다. 지난달 7일 시작된 이번 공모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정공모와 스토리공모 등 2개로 나눠 진행된다. ‘지정공모’는 전문가 100인과 시민의 사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한 12개 음식에 대해 참여자가 광주음식 1개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스토리공모’는 지정공모 음식을 포함해 참여자가 체험한 음식과 역사 등을 담은 스토리를 공모한다. 지정공모 부문에는 현재까지 광주시민과 타 지역에서 3천324명이 참여해 한정식, 상추튀김, 떡갈비, 육전, 오리탕 등을 광주 대표음식으로 뽑았다. 스토리공모에도 100여건의 음식스토리가 접수되는 등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광주시는 응모된 스토리 중 6편을 선정하고 시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김대유기자 ksh430@srb.co.kr

## 광주시, 에너지신산업 메카로 발돋움

### 연구기관·기업지원센터 설립 등 인프라 구축

광주시가 에너지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한 에너지신산업 메카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신성장 에너지산업 육성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업생태계 조성, 신기술 개발 및 지역기업 집중 육성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국내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에너지 신산업도시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우선 에너지 산업생태계 기반 구축을 위해 연구기관과 기업지원 센터 등을 설립해 인프라를 확보한다. 전력에너지 기술개발과 기업지원을 위해 관련 연구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 광주분원이 올해 착공해 2020년 6월부터 운영된다. 올해는 에너지 신산업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플랫폼으로 레독스 흐름전지 인증센터, 인공지능(AI) 활용 이온닉스 기반 소재

개발 플랫폼 센터 구축 등을 통해 관련 산업 육성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에너지신산업 초석 마련을 위해 조성하고 있는 에너지밸리 중 남구 도점산단을 산업부로부터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 받아 에너지기업 지원을 위한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한다. 신산업 발굴과 지역기업 육성 정책도 대대적으로 시행된다. ▲분산전원 연계한 빌딩용 전력시스템 개발 및 실증사업 ▲전력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산업 BM 및 서비스 개발 검증사업 ▲소규모 분산자원 중계시장 서비스 상용화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한다.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에너지 산업단지를 조성 위해 광주형 스마트에너지 자립산단 조성사업 용역을 올 2월께에 발주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김대유기자 ksh430@srb.co.kr

www.mdilbo.com

### ■지방지사 안내

지국명	전화번호	지국명	전화번호
목포	282-3500	보성	852-6633
동목포	244-4078	화순	374-8848
서목포	283-9336	강진	433-6533
남악	283-1540	해남	533-8811
순천	721-7788	무안	454-0038
나주중부	333-3771	함평	324-1332
담양	383-8111	영광	352-1525
곡성	362-2112	여수	662-6910
완도	552-1070	동여수	642-0051
진도	544-2223	영암	471-7146
신안	278-7332	장흥	862-8383
고흥	833-7875	구례	782-9854
장성	392-3000		

◆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 062-606-7776  
◆ 광고문의 : 062-606-7772

**무등일보**

# “무등일보 구독은 지역사랑의 실천입니다”